‘신안의 봄, 수선화로 채우다’

지도읍 선도서 ‘섬 수선화 축제’ 내일 개막

신안군은 지도읍 선도에서 ‘신안의 봄, 수선화로 채우다’란 주제로 4일부터 13일까지 ‘섬 수선화 축제’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축제가 열리는 선도는 14.5ha에 17품종 234만 구의 수선화가 식재돼 있는 전국 최대 군락지이다. 축제는 당초 시작을 개막식과 함께 준비했으나 경북지역의 산불 발생으로 개막식을 취소하고 테이프 커팅식으로 대체했다.

축제는 수선화 감상과 함께 꽃팔찌 만들기, 스텐실 꾸미기체험, 수선화 그림그리기, 스템프 투어 등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또 이벤트로 신안군의 ‘colorfull+신안’에 맞게 수선화의 노란색 의상을 착용한 관람객에게는 50% 입장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축제 관계자는 “수선화 축제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봄의 기운을 함께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강축복 기자

강진 ‘빈집 정책’ 중앙정부도 최고 정책 인정

농식품부, 빈집재생 지원 사업지구선정… 3년간 21억 지원

빈집을 주거 · 워케이션 문화 · 체험 · 창업공간으로 구성

강진군의 빈집정책이 중앙 정부로부터 최고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등 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지구에는 3년간 지구당 총 21억원이 지원된다.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규모화 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농촌에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빈집을 주거 · 워케이션, 문화 · 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병영면에 있는 빈집 10개소를 활용해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농촌 체험시설과 창업 및 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농촌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해 병영의 문화적 가치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구에 1년 차에 전체 예산의 10%, 2년 차에 40%, 3년 차에 50%를 각각 지원해 농촌빈집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군은 민선 8기 들어 빈집 리모델링 등 강력한 빈집정책을 통해 도시민들을 대거 유입시키고 있다.

강진군은 지금까지 60가구, 163명의 정착을 지원하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젊은 층과 가족 단위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지역사회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골목골목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다. 이들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1만원의 월세만 내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빈집 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일 잘하는 강진군만의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강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의 성과는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여러 지자체와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강진군을 방문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강진군의 성공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이와 같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남 남해군은 작년 상반기에 강진군 빈집 사업을 벤치마킹 후 하반기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 /강진=김경선 기자

‘완도 치유 페이’ 시행 한 달 만에 1000명 돌파

1000번째 방문객에 특산품 전달… “N번째 이벤트 계속”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완도 치유 페이’가 시행 한 달 만에 1000번째 이용객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완도군은 2일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시행하고 있는 ‘완도 치유 페이’의 1000번째 이용객을 대상으로 특산품 제공 이벤트를 펼쳤다고 밝혔다.

‘완도 치유 페이’는 여행 경비 중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관광 정책으로, 지난 3월1일 첫 시행된 이후 한 달 만에 1000명을 돌파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총 1000팀, 2950명이 1억1000만여원의 완도 치유 페이를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은 1일 완도치유페스타 현장안내소를 찾아 1000번째 이용객에게 완도 치유 페이와 특산품(전복 2kg)을 전달했다.

서울에서 완도를 찾은 치유 페이 1000번째 이용객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완도를 방문했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돼 기쁘다”며 “즐겁게 힐링하고 선물도 받는 완도 여행을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완도 치유 페이 N번째’ 이용객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 치유 페이가 인기를 모으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치유 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 치유 페스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5일 개막하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5월 장보고 수산물 축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완도=이두식 기자

영암, 장기 요양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자 수시 모집

영암군이 ‘장기 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자를 수시 모집 중이다고 2일 밝혔다.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이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살며 의료 ·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지난달 4일 시범사업에 들어간 영암군은 4/1일 현재, 15명의 어르신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있는 시범사업 참여 어르신과 보호자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는 월 1회 방문 진료로,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로,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방문 상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은 운영된다.

시범사업에는 장기 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다.

1~2등급 수급자를 우선해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욕창 드레싱과 한방침 치료 등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자세한 안내, 참여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1577-1000) 또는 영암군보건소(470-6211)에서 담당한다. /영암=김형두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해남, 전남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 선정

10월경 전통예술 한마당 행사 ‘전통놀이 愛 빠지다’ 개최

해남군과 해남문화관광재단이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공연예술제 ‘전통놀이 愛 빠지다’는 해남의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어우러진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10월 중 해남군민광장 잔디광장에서 열리며, 해남풍물패 해원, 해남 강강술래, 우수영 들소리 등 지역의 대표적 전통예술 단체가 대거 참여해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전통 놀이와 음악, 춤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해남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지역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예술제를 통해 해남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축제로 성장시키겠다”며 “앞으로 해남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무안군-소방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협약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 복지 · 안전 통합서비스 제공

무안군은 2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무안소방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안군 우리동네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 복지정보 제공 및 소규모 수리 · 수선, 주거환경개선 등 생활불편 개선을 시행하고, 무안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복지기동대와 협업하여 화재 안전진단, 위험요인 해소, 전기 · 가스 점검, 기초건강체크 등 안전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김산 군수는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확대해 따뜻하고 안전한 무안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9개 읍 · 면 총 165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안=김상문 기자

진도, 충무기 럭비 선수권대회 개최…10억 원 경제 효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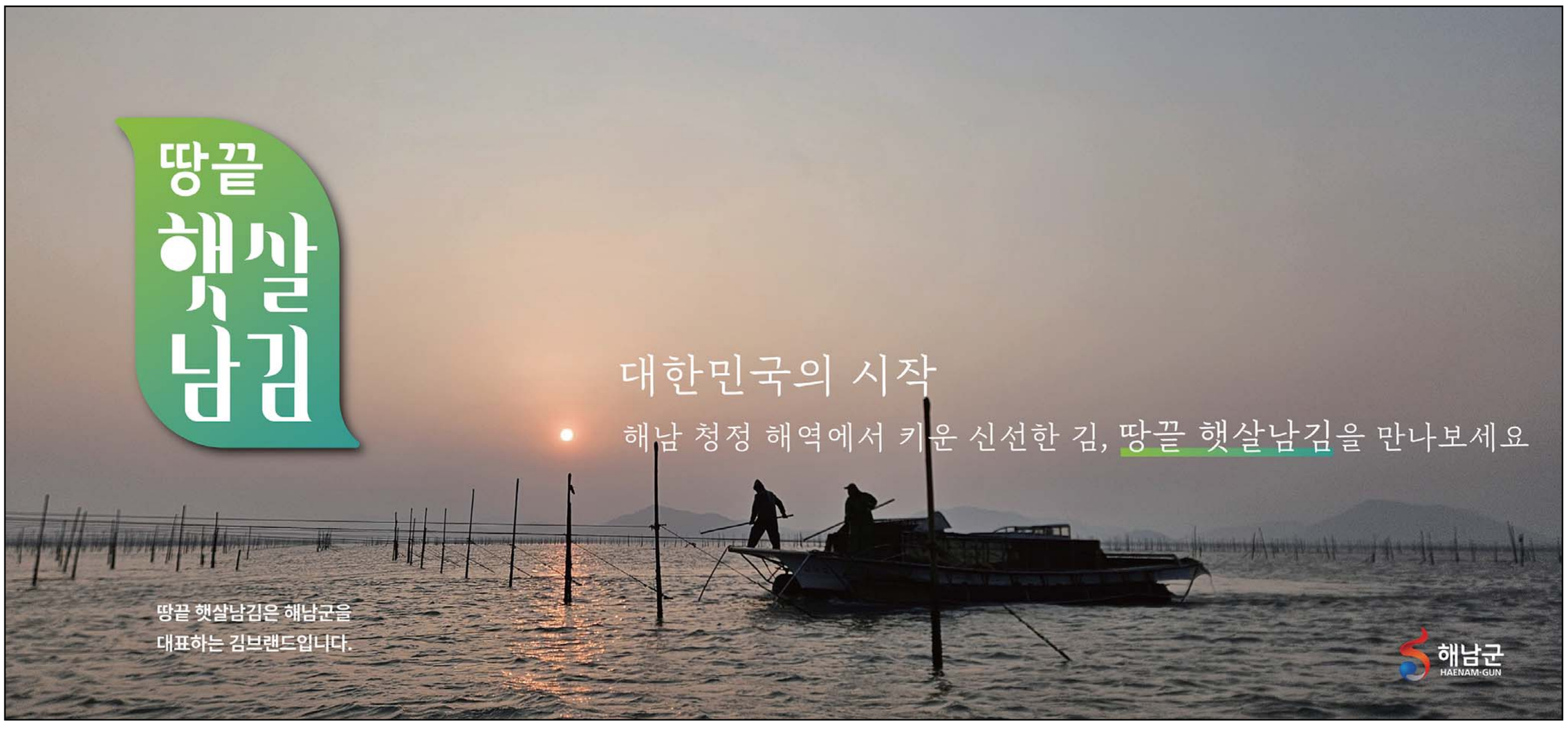
1125명 선수 · 응원단 등 방문… 숙박 · 음식점 등 다양한 곳서 소비활동

진도군은 제39회 충무기 럭비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850명의 선수와 관계자, 275명의 응원단이 진도를 방문했고, 경기장에는 열띤 응원으로 열기가 가득 찼다.

진도를 찾은 방문객들은 12일 동안 머물며 숙박업, 음식점, 카페, 운송업, 관광지, 특산품 · 기념품 판매점 등 다양한 곳에서 소비 활동을 했고, 1인당 하루에 평균 9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 약 10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고용 창출 등의 간접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진도군 스포츠산업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도 스포츠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무기 럭비 선수권대회는 대한민국 럭비 발전을 위한 주요 대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진도가 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 /진도=박재영 기자